

지역 소식 통

부안해경, 임수도 인근 해상 투신자 수색 총력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15일 오전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투신자 수색을 위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9분경에 어버지가 귀가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딸다툼 후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는 것 같으며 부안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즉시 3차 위치 조화를 실시한 결과 마지막 위치가 위도 좌표와 일치하고 식도 인근 해상으로 확인되었고, 신고자의 아버지가 여객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여객선의 CCTV를 확인 결과 오전 8시 20분경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투신한 장면이 포착되어 해경은 현재 해당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수색에는 해양경찰 함정 7척과 항공기 1기, 유관기관 선박 3척, 민간어선 6척 등 총 16척과 1기가 동원되어 해상 및 공중 수색을 진행 중이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내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안군은 지역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드는 고향사랑기금 제 실현을 위해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어르신, 청년, 어린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부안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1명) 은누리 상품권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3명) 각 10만원으로 계획돼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주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특화형 기금사업으로 구체화에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정읍시, 21일부터 신청 시작... 총 228억원 규모 ·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총 228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정읍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수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불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신청접수 시작

신청 첫 주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부안군은 잠재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일반국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수급자 45만원이 지급된다.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접수 및 지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고 오는 9월 중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택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신청접수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부안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신청접수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시 해당 읍·면에서 찾아

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인 부안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과 일부 면지역(동진·보안·백산·하서·위도면)·하나로마트 등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단대면결제 가능), 유흥·사해업종, 상품권업종, 보험업, 공공요금, 조세, 통신요금 등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 결정

경기침체 상황에서 군민 어려움 함께하는 책임 의정 실현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 및 지역사회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돼 있던 2025년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외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정책 우수사례를 직접 견학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기획되었으나,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이 보다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자진 취소하게 되었다.

있다.

고창군의회는 2025년도 의원국외연비와 의회사무과 직원국외연비 등 8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조만규 의장은 "지금은 배우려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군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지금 군의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책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 여행자원 1위는 재래시장... 정읍시, 전국 12위

정읍시가 '여행자·현지인 추천 여행자원' 1위로 선정된 재래시장 분야에서 전국 12위를 기록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칸슈마인사이트가 4만 8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에 따르면 58개 여행자원 중 '재래시장'이 추천율 30.1%로 1위를 차지, 그중 정읍시는 전국 지자체 중 12위에 올라, 재래시장 분야서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번 결과는 정읍시가 2019년 대비 87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린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 중 하나다. 이는 지역 내 전통시장 전반의 체계적인 육성과 더불어 대표 시장인 생고를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생고읍시장과 중앙로, 새암길 우암로 일대를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시설 현대화와 온라인



홍보, 지역 상권 연계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생고읍시장은 정읍 재래시장 중 대표로서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며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의 재래시장 추천율은 60.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지역민의 추천율이 여행객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정읍의 실질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이화수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자원이 된 재래시장에서 정읍이 12위에 오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운행

고창군이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창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버스는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존 고창터미널이 하나로마트 뒤편으로 임시 이전됨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셔틀버스는 전통시장 장날(매월 3일, 8일 / 월 6회)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 25인승 미니버스가 투입된다. 모든 이용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고창임시터미널을 출발하여 △(구)고창문화터미널 △고창군

청 △고창읍성 앞 정류장 △고창전통시장 동문주차장 △고창전통시장 남문주차장 △CU 고창보릿골점 등을 경유한 후, 다시 고창임시터미널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

또한, 고창군은 여름철 폭염 속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항상냉장고'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당 냉장고는 고창임시터미널, 고창전통시장 동문주차장, 남문주차장 등 셔틀버스 정차 지점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1인당 하루 1병씩, 매일 총 240병의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땀 공사 중지 검토... 근로자 안전이 먼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영상 간담회에서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공공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나 계약기간 조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각 부서에 현장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인근



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그늘막과 워터 냉각 의류 등

보냉장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운영집행 의식자 발생 시에는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을 시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 운영 측면에서도,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